



최희섭 연봉 '반토막'

57% 삭감 1억7천만원 도장... "그래도 흥가분해"

잠적소동 벌금 2천만원

'빅초이' 최희섭의 연봉이 2억3000만원 삭감됐다.

KIA 타이거즈 내야수 최희섭이 30일 지난 시즌 4억원에서 2억3000만원 삭감(57.5%)된 1억7000만원에 재계약 도장을 찍었다.

이번 삭감액은 지난 2008년 이종범의 3억원에 이어 구단 2번째로 큰 금액이며, 삭감률은 2005년 홍현우의 65%(2억원에서 7000만원)와 2008년 이종범(5억원에서 2억원)·심재학(2억5000만원에서 1억원)의 60% 삭감률에 이어 세번째이다.

최희섭은 지난 시즌 허리 디스크·발가락 미세 골절 등으로 70경기에 출전해 0.281의 타율로 9개의 홈런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4번 타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연봉 한파를 맞은 최희섭은 잠적 소동에 대한 대한 책

임으로 2000만원 벌금이라는 징계도 받았다.

이날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KIA는 구단 이미지 실추 및 팀워크 저해, 프로야구선수로서의 품위 실추 등을 이유로 최희섭에게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정상적으로 체력이 회복될 때까지 재활군 훈련에 임하라는 징계도 내렸다.

최희섭은 "흥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올 시즌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훈련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팀 이탈이라는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해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팀 동료 선수들에게 미안하다. 상벌위 결과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KIA의 미계약자는 투수 한기주와 외야수 이용규 두 명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헉! 2m1cm 福이 골러왔네

〈밀리치 한국 이름〉



201cm 장신 공격수 몬테네그로 올림픽 대표팀 출신 보그단 밀리치가 광주 FC에 합류했다.

광주 FC '골러왔 공격수' 보그단 밀리치 영입

'장신 군단' 광주 FC가 201cm의 외국 공격수를 영입했다.

광주의 중국 훈련 캠프에 몬테네그로 올림픽 대표팀 출신의 '골러왔 공격수' 보그단 밀리치(25)가 합류한다.

31일부터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밀리치는 201cm로 K리그 사상 처음으로 2m 벽을 넘었다. K리그 역대 최장신 선수는 포항의 스트라이커 김선우로 198cm였다.

밀리치의 가세로 광주의 평균 키는 185cm를 넘어설 전망이다.

광주의 지난해 등록선수 평균키는 184.4cm로 K리그 16개 구단 중 최고의 '장신 군단'을 형성했다.

수비수 유종현이 196cm로 팀 최장신 이었고, 공격수 박기동이 191cm로 그 뒤를 이었다. 홍명보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격수 김동섭도 188cm로 박기동·김동섭·밀리치 삼각편대 평균 신장은 196.3cm에 이른다.

K리그 최장신 선수로 등극한 밀리치는 '복이'라는 이름으로 그라운드를 누비게 된다.

광주는 보그단에서 이름을 따 '복이'로 K리그 등록명을 정했다. 복(福)자를 써서 2012년 광주의 8강 진입에 복덩이 되주라는 의미를 담았다.

복이는 지난해 몬테네그로 스파르타크 나치크에서 활약하며 15경기에서 2골을 넣었다. 2009년 올림픽대표팀에서는 7경기에 출전해 2골을 기록했다.

장신 공격수를 영입해 제공권에 힘을 더한 밀리치의 감독은 "복이의 제공권 능력이 일품이다. 정확하고 강한 헤딩을 구사해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큰 신장에도 볼 컨트롤과 슈팅도 괜찮은 편이다"고 평가했다.

최감독은 목포에서 진행된 국내 전지훈련을 통해 직접 복이의 기량을 점검했다.

최 감독은 "복이와 주앙파울로로 '빅 스몰' 공격 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세계 축구의 최장신 선수는 208cm로 벨기에에서 뛰고 있는 골키퍼 크리스토프 반 하우트(코르트레이크)이며, 아시아 최장신 선수는 205cm의 공격수 양창평(청주)이다.

그리고 202cm 안 콜레르(체코)는 대표인 '골러왔 킬러'로 이름을 날렸다.

로 K리그 등록명을 정했다. 복(福)자를 써서 2012년 광주의 8강 진입에 복덩이 되주라는 의미를 담았다.

복이는 지난해 몬테네그로 스파르타크 나치크에서 활약하며 15경기에서 2골을 넣었다. 2009년 올림픽대표팀에서는 7경기에 출전해 2골을 기록했다.

장신 공격수를 영입해 제공권에 힘을 더한 밀리치의 감독은 "복이의 제공권 능력이 일품이다. 정확하고 강한 헤딩을 구사해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큰 신장에도 볼 컨트롤과 슈팅도 괜찮은 편이다"고 평가했다.

최감독은 목포에서 진행된 국내 전지훈련을 통해 직접 복이의 기량을 점검했다.

최 감독은 "복이와 주앙파울로로 '빅 스몰' 공격 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세계 축구의 최장신 선수는 208cm로 벨기에에서 뛰고 있는 골키퍼 크리스토프 반 하우트(코르트레이크)이며, 아시아 최장신 선수는 205cm의 공격수 양창평(청주)이다.

그리고 202cm 안 콜레르(체코)는 대표인 '골러왔 킬러'로 이름을 날렸다.

광주는 보그단에서 이름을 따 '복이'로 K리그 등록명을 정했다. 복(福)자를 써서 2012년 광주의 8강 진입에 복덩이 되주라는 의미를 담았다.

복이는 지난해 몬테네그로 스파르타크 나치크에서 활약하며 15경기에서 2골을 넣었다. 2009년 올림픽대표팀에서는 7경기에 출전해 2골을 기록했다.

장신 공격수를 영입해 제공권에 힘을 더한 밀리치의 감독은 "복이의 제공권 능력이 일품이다. 정확하고 강한 헤딩을 구사해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큰 신장에도 볼 컨트롤과 슈팅도 괜찮은 편이다"고 평가했다.

최감독은 목포에서 진행된 국내 전지훈련을 통해 직접 복이의 기량을 점검했다.

최 감독은 "복이와 주앙파울로로 '빅 스몰' 공격 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세계 축구의 최장신 선수는 208cm로 벨기에에서 뛰고 있는 골키퍼 크리스토프 반 하우트(코르트레이크)이며, 아시아 최장신 선수는 205cm의 공격수 양창평(청주)이다.

그리고 202cm 안 콜레르(체코)는 대표인 '골러왔 킬러'로 이름을 날렸다.

문지희 한국바이애슬론 사상 첫 금

신안군청 소속... 아시아선수권 15km 54분 13초

신안군청 문지희가 한국바이애슬론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문지희는 30일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경기장에서 열린 제7회 바이애슬론 아시아 선수권대회 인디비주얼(15km)에서 54분 13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카자흐스탄의 오펜델바갈리나를 1분28초 차이로 제치고 차지한 값진 금메달이다.

문지희는 스프린트(7.5km) 부문에서도 22분 40초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문지희는 대회 마지막날인 31일 오전 믹스릴레이(27km)에 출전해 2관왕에 도전한다.

한편 지난 28일 개막한 이번 대회에는 한국·일본·중국·카자흐스탄·대만·몽골 6개국 100여명이 참가했으며, 전남에서는 문지희와 함께 신안군청 김서라가 출전했다. 김서라와 함께 신안군청 김서라가 출전했다. 김서라와 함께 신안군청 김서라가 출전했다.



으로 참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쉬워요" 이규혁이 30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세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 500m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관중석을 향해 세러모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혁 "아깝다 V5"

세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 銀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말똥' 이규혁(34·서울시청)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최 세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개인 통산 5번째 우승 달성에 실패했다.

이규혁은 30일(한국시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500m 2차 레이스에서 34초67로 9위에 오른 뒤 1,000m 2차 레이스에서는 1분07초99만에 들어와 6위를 차지했다.

전날 500m 1차 레이스 1위, 1,000m 4위로 중간 순위 1위를 달린 이규혁은 이날 상적까지 합산한 종합 점수 137,000점으로 최종 2위가 됐다.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모태범(23·대한항공)은 137,080점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한편 여자부에 출전한 이상화(23·서울시청)는 150,820점을 얻어 전체 11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밀양신평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운드, 천연 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리너, 하부언더코팅, 자동차경비일체, 빗대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비뒀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서리 일체,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이자가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전국 최저가 판매, 국내 최대 500평매장,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임동 자동차처리 중간사거리(20번길)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죽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최저가

- ▶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 RV 5인기준 7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타이어 4짝 교체시 스노우체인 12만원 상당 무료증정(공짜)

- 얼라이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평생 펌크 무상점검
- 타이어와 뒤 순환교환 평생 무료점검
- 브레이크패드 무료점검

공짜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 소형 25만원 ⇒ 13만원
- ▶ 중형 30만원 ⇒ 18만원
- ▶ 대형 35만원 ⇒ 23만원
- ▶ RV 35만원 ⇒ 23만원
-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